

북미 공공도서관계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경향과 특성

A Study on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the Public Libraries of North America

이 연 옥(Yeon-Ok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밴쿠버 공공도서관 사례를 통해 본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
| II. 북미 공공도서관계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양태 | 1. 누구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는가? |
| 1. 국가적 비극 및 자연재해 등의 위기상황과 관련한 지원 | 2.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 2. 독자상담의 일환 | 3. 어떤 정보원을 활용하는가? |
| 3. 정보서비스의 일환 | 4. 독서치료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 | IV. 북미 공공도서관계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특징 |
| | V. 결론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관련 지원서비스의 경향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는 문헌연구와 밴쿠버 공공도서관을 사례로 하는 관찰과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도움요청과 이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원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은 국가적 비극이나 자연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겪게 되는 주민들의 충격과 불안,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시적 서비스를 비롯하여 독자상담과 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를 일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입양, 이혼, 재혼, 별거가족, 친구, 장애, 죽음, 자아존중, 정서, 왕따, 폭력, 학대, 자살, 질병, 중독, 성문제, 청소년임신 등)와 관련한 지원이 활발하였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에서 사서들의 핵심적 역할은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추천하며,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데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키워드: 독서치료, 정신건강 서비스, 독자상담, 참고서비스, 정보서비스, 어린이서비스, 청소년서비스, 공공도서관

ABSTRACT

This study discussed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ental health services in the public libraries of North America. To accomplish this, this study collected its data through literature surveys, observations and interviews with librarians within the Vancouver public library system.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patrons asked public libraries for information on their mental health problems and the public libraries helped the patrons cope with their problems. The public libraries' assistance programs for national tragedies and natural disasters were temporary services. On the other hand, public libraries were continuously advising and guiding patrons dealing with emotion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through the readers' advisory and information services. Specifically, public libraries were actively assisting various sensitive issues that are generated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 and youths(for example, adoption, divorce and separation, remarriage, family, friendship, disabilities, death, self-esteem, emotions, bullying, violence, abuse, suicide, illness, addiction, sexual health, youth pregnancy and so on). The key role of librarians under these circumstances was to guide and recommend appropriate books and professional institutions that help solve the problems.

Keywords: Bibliotherapy, Mental Health Services, Readers' Advisory, Reference Services, Information Services, Children Services, Youths Services, Public Libraries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idisfeel@hanmail.net)

• 접수일: 2010년 2월 19일 • 최종심사일: 2010년 3월 8일 • 최종심사일: 2010년 3월 26일

I. 서론

국내에서 지역주민의 생활 속의 상처나 문제들을 도서관 차원에서 해결해주는 주요한 봉사방법으로 독서치료가 각광받고 있다. 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2003년도부터 부산남구도서관, 성남도립도서관에서 시작되어, 2009년 현재 50여개의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을 위한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¹⁾ 독서치료프로그램 외에도 많은 공공도서관들이 독서치료목록을 개발하여 안내하거나 도서관 내 코너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양한 상처나 문제에 대해 도서관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들은 생활 속의 상처나 문제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개입과 지원이라는 점에서 도서관계와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서비스로서 독서치료의 역사가 매우 짧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증인들이 참여고객들의 체험을 통해 확산되는 등 도서관의 독서치료는 지역주민들로부터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²⁾ 국내 도서관의 독서치료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과 반응은 도서관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새로운 요구라고 해석될 수 있다.

사실 도서관의 독서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위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신 건강문제를 지원해주는 사회시스템은 너무도 빈곤한 실정이다.³⁾ 따라서 도서관의 독서치료가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며 건강한 삶을 유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우리 공공도서관계는 독서치료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문제에 도서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서관의 독서치료는 처음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서치료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북미의 병원도서관을 중심으로 수용되어 군사들을 위해 서비스되었다. 이후 1939년 미도서관협회 병원분과에서 독서치료위원회를 설립하게 됨으로써 독서치료가 도서관계의

1) 이제환, “한국 도서관계에서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9. 12), p.17.

2) 이와 관련해서는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객들의 체험기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2009년 4월부터 6월까지 충청북도중앙도서관과 울산중부도서관에서 진행되었던 독서치료프로그램 결과보고서이다(한국도서관협회, 2009년도 독서대학 자료집-책읽기를 통한 마음의 상처 치유하기(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9)). 뿐만 아니라 김순화, 김수경의 박사학위논문에서도 도서관의 독서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고객의 체험과 그 효과가 소개되어 있다(김순화,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부산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5). ; 김수경, 주부의 마음상함과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적용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부산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6)).

3) 우리나라 정신보건 환경의 낙후성 문제는 다음의 책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정원철, 정신보건 사회사업론(서울 : 학문사, 2000), pp.29-37).

공식적인 위상을 얻게 되었다.⁴⁾ 1940년대에 이르면 도서관뿐만 아니라 심리치료사와 정신분석가들이 책을 치료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사서들은 이들과 팀이 되어 책을 읽는 활동을 포함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2차 세계대전시에는 군대와 재향군인 병원에서 독서치료가 보다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형태의 치료들이 소개되면서 병원에서의 독서치료와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되었다.⁵⁾ 이후 독서치료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재조직되어 지역 사회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파악과 조사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⁶⁾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문헌정보학대학원(The School of Library, Archival & Information Studies)에서 연구원으로 머물면서 이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탐구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연구자는 북미 공공도서관에서는 현재 독서치료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를 비롯하여,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 실태를 살펴보고 싶었다.

이처럼 연구자가 처한 개인적 상황, 그리고 독서치료를 비롯한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국내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함으로써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를 비롯한 정신건강 관련 지원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자가 북미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실태를 규명하고자 하는 궁극적 의도는 이제 막 '이륙기'⁷⁾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 도서관의 독서치료와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개발과 실행에 시사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찰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함이다.

북미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두 가지다. 먼저 북미지역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전반적 현황은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개입과 지원의 구체적인 현황과 속내를 살펴보기 위해 캐나다 밴쿠버 공공도서관을 사례로 하여 심층적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사례도서관에 대한 데이터는 도서관 및 분관의 방문과 관찰, 사서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4) Shifra Baruchson-Arbib, "Bibliotherapy in School libraries : An Israeli Experiment," *School Libraries Worldwide*, Vol.6, No.2(2000), p.102.

5) 김남식, "독서치료의 이론적 이해," 상담과 선교, 제41권(2003), pp.42-43.

6) 최근(2009년 12월) 이제환이 이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이제환, "한국 도서관계에서 독자상담과 독서치료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0권, 제4호(2009. 12), pp.5-29).

7) 김정근은 우리 사회의 독서치료가 이륙기에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김정근, "독서치료에서 '진정성'의 요소," 도서관, 제60권, 제2호(2005. 12), pp.163-185).

Ⅱ. 북미 공공도서관계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양태

북미 공공도서관의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개입과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1. 국가적 비극 및 자연재해 등의 위기상황과 관련한 지원

우선, 국가적 비극이나 지역사회에 자연재해 등이 일어났을 때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개입과 지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주로 주요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서관계 및 지역도서관 차원에서 다양한 도움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 같은 도움서비스에는 지역주민들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 상처를 완화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책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서비스는 미국의 국가적 재앙이었던 9.11 테러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미도서관협회의 어린이서비스위원회(ALSC : Association for Library Service to Children)는 9.11 테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경험한 충격과 공포, 가족의 죽음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에 주목하고 이를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책과 정보를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하여 부모 및 교사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⁸⁾

또한 뉴욕 공공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에서도 9.11 테러 직후 비극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와 자료를 추천도서목록(booklists) 형태로 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 도서관이 제공한 목록에는 가족이나 친구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위로하는 책, 어린이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책, 자녀들의 불안과 공포에 대처하기 좋은 책 등 비극적 상황을 경험한 미국인들의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 포함되었다. 뉴욕 공공도서관의 경우 관련 책과 정보뿐 아니라 화, 슬픔, 우울 등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강연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십대들을 대상으로 화, 슬픔, 우울 등의 경험과 관련한 글쓰기와 이에 대한 낭독회를 열기도 하였다.⁹⁾

뿐만 아니라 프라버던스 공공도서관(Providence Public Library)에서도 9.11 테러 이후의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청소년들의 불안과 화감정을 누그러뜨리는 데 목적을 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심리치료사나 작가를 초청한 토론회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¹⁰⁾

8) ALA, *Resources for Children and Their Parents and Educators Dealing with the American Tragedy of September 11*, 2001.

9) Laura Hayes, "Coping, View 1: Programs Laudable," *American Libraries*, Vol.33, No.8(Sept 2002), p.35.

10) *Ibid.*, p.36.

한편, 지역사회의 위기상황에 대한 도서관의 지원은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서관은 태풍으로 가족을 잃거나 집이 사라지는 등 자연재해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관련 정보와 자료,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2005년 8월 미시시피 해안과 루이지애나 지역에 허리케인이 덮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자 이 지역 공공도서관들은 자연재난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전개하였다.¹¹⁾ 공공도서관들은 이재민들을 위해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였으며, 참고서비스 사서들은 가족과 친지의 생존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프린터기, 팩스기, 복사기 사용도 무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피난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험, 직업, 주택, 음식, 보조금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도 제공하였다.¹²⁾

그러나 도서관의 서비스는 이러한 물적 지원에 머물지 않았다. 도서관은 이재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상처에 주목하고 이들의 감성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다. 재난상황에 처해있는 가족과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과 오디오, 비디오자료를 전시하였으며, 자녀들을 위한 스토리타임, 북토크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몇몇 도서관에서는 카운슬러를 초청하여 책토론회를 실시함으로써 피난민들의 심리적인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¹³⁾ 이재민들과 함께 한 많은 사서들은 스스로가 사서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사였다는 평가를 주저하지 않았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는 것을 도왔으며,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귀 기울여듣고 함께 울었다. 주민들을 위로하였으며 위안을 주고자 하였다.¹⁴⁾

이처럼 국가적 비극과 자연재난과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지원서비스는 도서관이 위기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 시민들의 특별한 정보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나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충격과 불안, 공포, 고통, 스트레스 등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점은 미국 도서관계에서도 의미있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국가적 비극과 자연재해가 발생한 시기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시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2. 독자상담의 일환

북미 공공도서관은 독자상담(Readers' Advisory)을 통해서도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다. 독자상담은 독자의 독서흥미나 관심, 욕구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저자나 작품을 추천하고 안

11) Mary Cospier LeBoeuf, "Disaster Strike, Public Libraries Prevail: The Impact of Hurricanes Katrina and Rita on Louisiana Public Libraries," *Louisiana Libraries*, Vol.68, No.4(Spring 2006), pp.3-7.

12) Marylaine Block and Ann Kim, "All(Librarian) Hands On Deck," *Library Journal*, Vol.131, No.5(March 2006), pp.22-25.

13) Mary Cospier LeBoeuf, *op. cit.*, p.5.

14) Mary Cospier LeBoeuf, *Ibid.*, p.4. ; Beth Dempsey, "Responding to Disaster," *Library Journal*, Vol.130(Dec 2005), p.8.

내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북미 공공도서관계를 중심으로 번성하였다. 그러나 이후 사서들의 관심이 줄어들었지만 1980년대에 다시 살아나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독자상담의 주요 고객은 성인이었으나 현재는 어린이, 청소년 등 모든 연령대의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또한 책뿐만 아니라 DVD, 비디오, 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포함하여 서비스하고 있다.¹⁵⁾

초기 독자상담은 교육적 목적에 입각하여 독자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즉 좋은 책이 무엇인지를 독자들이 알게 할 뿐 아니라 사서가 안내하는 책을 통해 독자들이 어떤 특정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독자상담은 책과 독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로 규정한다.¹⁶⁾ 따라서 독자상담을 담당하는 사서는 독자와 도서관자료 사이의 살아있는 연결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한 역할로 여긴다.¹⁷⁾ 독자의 독서에 대한 조언자로서 사서는 이용자인 독자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개별독자들의 독서욕구와 취향, 수준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개별화된 독서목록을 개발하여 제공한다.¹⁸⁾ 이러한 개별 독자에 대한 책 안내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독서욕구와 경향에 대한 분석과 서비스경험을 토대로 미리 추천도서목록(book list)과 같은 도구를 만들어 독자들이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도구들은 또 다른 고객의 독서욕구를 고무시켜 독자로 만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독서요구를 토대로 하는 배열과 전시로서도 이용자들의 독서에 대한 자극과 안내가 이루어진다.¹⁹⁾

이 같은 독자상담은 독자들의 독서흥미에 기반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왕따, 학대, 폭력, 이혼 및 재혼, 입양, 부모의 부재, 죽음, 공포나 화와 같은 정서적 문제, 친구관계, 가족관계, 장애, 자아존중, 성문제, 강간, 청소년의 임신, 중독 등의 다양한 문제상황과 관련해서도 독자상담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 북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발견되고 있다. 고객의 문제상황과 관련한 독자상담에서는 고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을 추천하고 안내하며, 안내된 책을 통해 고객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서비스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문제상황과 관련한 추천도서목록을 개발하여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도서관 고객 중에서도 특히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으로는 알렌카운티 공공도서관, 리자이나 공공도서관

15) Joyce G. Saricks, *Readers' Advisory Service in the Public Library*, 3rd ed.(ALA, 2005), pp.1-13.

16) *Ibid.*, p.12.

17) *Ibid.*

18) *Ibid.*, pp.1-13.

19)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 사서들에게 광범위한 독서배경이 요구된다. 독서조언자인 사서는 책의 내용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 책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는 능력, 책에 대한 감동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Ibid.*, p.7).

관, 시애틀 공공도서관, 피츠버그카네기 도서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도서관에서는 주로 어린이청 소년들이 당면한 문제상황을 중심으로 독자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알렌카운티 공공 도서관(Allen County Public library)은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대두되는 문제상황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안내해주고 있다. 이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들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를 민감한 문제(Sensitive Topic)라는 주제 아래 탄생(아기), 죽음, 병원, 장애, 이혼, 가족, 공포, 감정, 질병, 물리적 학대, 안전, 성적학대, 성문제, 약물남용, 치료 및 치유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 아래 다시 세부 문제상황을 제시하여 관련 자료들을 추천도서목록(booklists) 형태로 안내하며 이를 통한 독자상담을 하고 있다(표 1 참조). 어린이사서들이 개발한 이 자료는 현재 북미의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표 1〉 알렌카운티 공공도서관의 문제상황 관련 추천도서목록²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생, 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유수유 - 형제 - 아기는 어디에서 올까? - 새 아기 - 기타 아기관련 책 • 죽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부모, 조부모) - 친구 - 애완동물 - 기타 죽음과 관련된 책 • 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과 - 의사 - 수술 및 병원 •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단 및 보철 - 자폐증 및 아스퍼거 증후군 - 다운증후군 - 난청 - 시각장애 - 학습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 기타 신체장애, 정신장애 관련 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 재혼가족을 보라 •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 - 혼합가족 및 재혼가족 - 수양가족 - 홈리스 - 다민족(Multi-Racial) - 외동 아이 - 동성부모 - 한 부모 - 기타 가족관련 책 •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둠/악몽 - 괴물 - 이사 - 안전 - 분리불안 - 태풍 - 기타 공포와 관련된 책 • 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 - 자아존중감 - 기타 감정과 관련된 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DS - 알츠하이머 - 천식 및 알레르기 - 암 - 당뇨 - 머릿니 - 정신질환과 감정문제 - 기타 질병관련 책 • 물리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학대(괴롭힘, 왕따) - 가족에 의한 학대 - 사회적 학대(전쟁, 총기) • 안전 • 성적 학대 • 성문제(어린이성교육, 사춘기 성문제) • 약물남용(알코올, 마약, 담배) • 치료 및 치유 |
|--|---|--|

캐나다 리자이나 공공도서관(Regina Public Library)은 그림책을 대상으로 하여 어린이들의 관심 및 문제 관련 책과 자료를 알파벳순으로 안내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문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입양, 가족 및 친구의 죽음, 애완동물의 죽음, 장애, 이혼 및 별거, 감정, 안전, 가족, 우정, 조부모, 병원, 이사, 평화와 전쟁, 안전문제, 형제, 자아존중, 배변훈련문제를 다루고 있다. 어린이들과 부모

20) Allen County Public Library, Parents' Primer Booklists-A Selection of Materials about Sensitive Topics, <<http://www.aclp.lib.in.us/children/primer.html>> [cited 2010. 1. 8].

및 교사들을 위해 관련 문학자료, 년픽션자료, 카세트, 비디오, DVD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리자이나 공공도서관의 문제상황 관련 추천도서목록²¹⁾

| | | |
|---|--------------------------------------|--|
| - Adoption(입양) | - Dinosauers(공룡) | - Libraries(도서관) |
| - Alphabet Books(알파벳 책) | - Disabilities(장애) | - Monsters(괴물) |
| - Autumn(가을) | - Divorce and Separation (이혼, 별거) | - Moving(이사) |
| - Babies(아기) | - Doctors and Nurses(의사, 간호사) | - Occupations(직업) |
| - Baths(목욕) | - Dragons(용) | - Outer Space(우주공간) |
| - Bedtime(잠자리시간) | - Dwellings(거주) | - Peace and War(평화와 전쟁) |
| - Birthdays(생일) | - Ecology(생태) | - Pets(애완동물) |
| - Childbirth(탄생) | - Emotions(감정) | - Safety(안전) |
| - Circus(서커스) | - Eyeglasses(안경) | - School/Nursery/Daycare (학교, 보육, 탁아) |
| - Clothing(의복) | - Families(가족) | - Seasons(계절) |
| - Colours(색깔) | - Farms(농장) | - Self Esteem(자아존중) |
| - Concepts(개념) | - Fires and Firefighters(불, 소방관) | - Senses(감각) |
| - Counting(수) | - Food(음식) | - Siblings(형제) |
| - Death of a Family Member/Friend (가족, 친구의 죽음) | - Friendship(우정) | - Spring(봄) |
| - Death of a Pet(애완동물의 죽음) | - Grandparents(조부모) | - Summer(여름) |
| - Dentists and Teeth(치과치료와 치아) | - Hospitals(병원) | - Toilet Learning(배변훈련) |
| | | - Transportation(운송) |
| | | - Winter(겨울) |

미국 시애틀 공공도서관(Seattle Public Library)에서도 어린이와 관련한 민감한 주제(Sensitive Issues)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추천도서목록(booklists)을 개발하여 안내하고 있다. 입양, 왕따, 죽음, 이혼, 이사, 자신감이라는 6가지 문제상황을 민감한 주제로 설정하여 각 주제별 추천도서목록을 제작하여 어린이와 그 가족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피츠버그카네기 도서관(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은 독서치료 목록(bibliotherapy booklists)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의 문제상황과 관련하여 안내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독서치료목록 또한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되었다. 특히 이를 개발한 사서들은 어린이들의 걱정과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추천하였으며 또한 교사, 양육자, 부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표 3 참조).

21) Regina Public Library, KidSpace : Themes for Early Learners,
 〈<http://www.rpl.regina.sk.ca/kidspace/parents/subjects.html>〉 [cited 2010. 1. 10].

〈표 3〉 피츠버그카네기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 목록(bibliotherapy booklists)²²⁾

| | | |
|-----------------|----------|---------------------|
| - 입양 | - 시각장애 | - 태도 |
| - AIDS | - 청각장애 | - 이사 |
| - 어른들과의 관계 | - 학습장애 | - 새학년 |
| - 아기 | - 정신적 도전 | - 교도소에 있는 부모 |
| - 베이비시터 | - 신체적 도전 | - 인내 |
| - 취침공포 | - 이혼과 재혼 | - 안전 |
| - 왕따 | - 가족 | - 학교 |
| - 어린이학대 | - 감정 | - Security Blankets |
| - 싸움 | - 상실 | - 자아존중 |
| - 데이케어(daycare) | - 흡리스 | - 손가락 빨기 |
| - 죽음 | - 동성애 | - 배변훈련 |
| - 장애 | - 정직 | - 관용 |
| | - 질병, 병원 | |

3. 정보서비스의 일환

북미지역에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도서관의 지원은 정보서비스 형태로도 전개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당면하는 문제나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성, 건강, 인간관계, 죽음, 상실, 안전, 불안, 공포, 흡연 등의 문제 상황을 비롯하여 청소년임신, 강간, 우울, 자살, 폭력, 약물중독, 성병 등의 위기상황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방안을 지원하는 심도 깊은 정보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문제에 개입하고 있다.

정신건강문제와 관련한 정보서비스는 특정 문제나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안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정 문제나 위기와 관련된 전문기관의 상담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연결해 주는 레퍼럴서비스(referral services)에 중점을 두었으며 더불어 관련된 책과 자료의 안내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사례도서관으로 먼저 토론토 공공도서관(Toronto Public Library)의 청소년서비스를 살펴볼 수 있다. 토론토 공공도서관에서는 청소년의 요구를 분석하여 이들 요구에 입각한 다양한 청소년서비스를 개발 실행하고 있다. 이 도서관의 청소년서비스는 청소년램프(RAMP for Youth)라는 이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서관은 청소년램프를 통해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직업, 여가, 오락, 학교과제, 자원봉사 등의 주제 분야와 더불어 청소년의 육체와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도 심

22) 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Bibliotherapy Booklists : Helping Young Children Cope in Today's World*.
 〈<http://www.carnegielibrary.org/research/parentseducators/parents/bibliotherapy/>〉 [cited 2010. 1. 10].

도 깊은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을 고려하여 그에 관한 도움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4〉 토론토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을 위한 정보서비스²³⁾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건강 일반 - 병원 - 피임 - AIDS - 성병 - 사춘기 - 성 정체성 - see also: 임신 • 임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피임 - 테스트 - 상담 - 낙태 - 입양 - 산전 관리 - 추천도서목록 - see also: 피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 주거 - 필수품 - 상담 - 생활양식 - 보육 - 추천도서목록 - see also: 대안학교/입신/학교가맞지 않아? •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 데이트 - 추천도서목록 - 슬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의 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기관 - 호스텔 - 음식 - 의복 - 세탁 - 청소년 상담 - ID Cards - 프로그램 및 서비스 -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를 위한 지원 - see also: 대안학교/학교가 맞지 않아? •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일반 - 추천도서목록 - see also: 장애청소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일반 1 - 병원 - 피트니스 - 영양 • 신체이미지(Body 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도서목록 - 섭식장애 - see also: 사춘기/영양 • 정신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과 치료 - 장애 - 추천도서목록 - 마음 이론 - see also: 위기/섭식장애/자살 • 흡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보 - 상담과 치료 |
|--|---|---|--|

〈표 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토론토 공공도서관은 청소년의 문제상황을 성건강, 임신, 청소년 부모, 관계, 거리의 청소년, 장애, 건강, 신체, 정신건강, 흡연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와 전문기관을 안내하며, 관련 책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서관에서는 “당신의 영혼과 신체를 잘 돌봐야 한다”라는 모토 아래 자살, 위기, 약물 및 알코올남용, 성적학대, 신체학대, 법적 문제를 청소년의 위기상황으로 설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즉각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표 5 참조).

〈표 5〉 토론토 공공도서관의 청소년의 위기 관련 정보서비스²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 위기 • 약물과 알코올 남용 • 약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늘교환과 위해 완화 - 정보와 교육 - 상담과 치료 - 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과 치료 - 가정 내 성폭행 - 데이트 상대에 의한 성폭행 - 성폭력희생자를 위한 치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과 치료 - 가정 폭력 - 폭력 예방 - 폭력행동치료 • 법적 문제 |
|---|--|--|

23) Toronto Public Library, RAMP for Youth Homepage, <http://ramp.torontopubliclibrary.ca/secondary/lifestuff/one-content.jsp> [cited 2010. 1. 8].

24) *Ibid.*

또한, 피츠버그카네기 도서관(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에서도 지역사회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도서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십대가 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가족 및 친구관계, 신체문제, 건강과 안전, 진학과 교육, 직업과 경력, 돈, 임신과 부모, 폭력, 학대, 왕따를 비롯하여 자원봉사,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도서관에서는 청소년들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특정문제와 관련하여 십대들에 의해 생산되는 정보와 십대 양육과 관련된 부모들을 위한 정보와 사이트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서비스를 통해 도서관은 청소년들의 문제와 위기극복에 도움을 주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피츠버그카네기 도서관의 청소년을 위한 정보서비스²⁵⁾

| | |
|------------------------------|--|
| Alcohol & Drugs | 알코올과 약물 남용의 영향, 이의 극복과 관련된 정보들을 소개, 비디오, 포럼, 관련 기관 등을 소개 |
| Getting Around | 여행지, 운전, 교통 등 여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
| GLBTQ |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관한 정보제공, 이들 캐릭터들이 있는 픽션자료 목록, 웹사이트 및 지원받을 수 있는 관련기관과 단체 소개, 당면문제들과 극복방안들 소개 |
| Go Green |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 |
| Health & Safety | 자살, 우울, 폭력 등 육체와 정신의 건강문제, 안전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 및 대처를 위한 도움 정보 제공 |
| Higher Education | 고등학교 이후의 진학관련 정보제공 |
| Money | 경제의 중요성을 비롯하여 저축, 신용, 투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 Jobs and Careers | 직업 및 진로 정보 |
| On & Off the Streets | 홈리스청소년들을 위한 정보 |
| Politics | 정치, 투표를 비롯하여 십대들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
| Pregnancy & Parenthood | 임신,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픽션, 넌픽션자료를 비롯하여 십대부모들을 위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 |
| Relationship | 여자친구, 남자친구, 부모, 형제, 교사 등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관련 정보 제공, 추천도서목록, Web Sites,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소개 |
| Sex & Sexuality | 피임, 안전한 섹스, 성병 등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위한 도움 정보 제공, 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추천도서목록 제공 |
| Violence, Abuse and bullying | 폭력, 학대, 왕따 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십대들을 위한 도움 정보 제공 |
| Volunteering | 십대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보 안내 |

25) Carnegie Library of Pittsburgh, Teen, Life <<http://www.carnegielibrary.org/teens/life/>> [cited 2010. 1. 10].

Ⅲ. 밴쿠버 공공도서관 사례를 통해 본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이 장에서는 북미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현황과 그 속내를 살펴보고자 캐나다 밴쿠버 공공도서관(Vancouver Public Library)을 사례로 하여 조사해보았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의 참고서비스 중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참고질의와 그 질의에 대한 사서들의 대응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도서관의 지원양태를 고찰해보았다.

이와 관련한 데이터는 캐나다 밴쿠버시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사서와의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밴쿠버 공공도서관은 중앙관과 22개의 분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앙관과 분관의 어린이(청소년)사서는 총 32명이다.²⁶⁾ 이 중 중앙관의 대표사서 1인과 밴쿠버 공공도서관의 4개 권역인 동부, 서부, 남부, 북부를 대표하는 사서 4인과의 면담을 통해 답변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2009년 11월 한 달 동안에 이루어졌다. 이후 연구자는 밴쿠버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사서 대상의 정기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전체 사서들을 대상으로 재질문과 추가질문을 함으로써 사서들의 서비스경험과 관련한 데이터를 보강하였다.²⁷⁾

구체적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나 청소년의 당면한 문제(예를 들면 왕따, 이혼, 폭력, 학대, 부모의 부재, 가족의 죽음, 공포, 화, 우울 등 정서적 문제, 친구관계 등)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는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누구로부터 질문을 받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요청을 받는가?

둘째, 이럴 경우, 사서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셋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어떤 정보원을 활용하는가??

넷째,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하나로서 독서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1. 누구로부터, 어떤 요청을 받는가?

어린이나 청소년의 특정 문제와 관련한 질문과 도움요청은 주로 참고데스크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혹은 스토리타임에 참석한 부모들이 스토리타임 이후 어린이사서에게 자녀의 문제와 관련하여 고민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사서들은 어린이(청소년)사서라면 이러한 질문을

26) 밴쿠버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사서는 30명이며 이들은 중앙관과 22분관을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분관에는 어린이사서가 평균 1명 정도 배치되어 있다. 청소년을 담당하는 사서는 2명으로 이들은 중앙관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27) 연구자는 Vancouver Public Library Children & Teens Services Committee 주최의 정기 컨퍼런스(2009년 12월 1일)에 참석하여 "Children's Services in Korea"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기회가 있었다. 이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시간 이후 밴쿠버 공공도서관과 분관의 전체 어린이(청소년)사서들을 대상으로 약 30분간 재질문 및 추가 질문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답변을 보강할 수 있었다.

자주 받게 된다고 전한다. 질의자는 부모들이 주를 이루고 교사, 어린이집 종사자들도 자주 질문한다고 한다. 어린이가 직접 질문하는 경우는 없으며 십대들의 경우는 간혹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서들이 자주 문의를 받게 되는 특정 문제나 이슈는 왕따, 사이버왕따, 이혼, 분노, 두려움, 질투, 슬픔 등과 같은 감정처리문제, 입양, 새로운 학교나 학년에서의 적응문제, 친구관계, 가족 및 형제관계, 죽음, 성병, 학습능력문제, 언어습득문제 등과 관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서의 답변이다.

스토리타임 이후 많은 부모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아이 양육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친구사이의 따돌림문제, 이혼, 아이가 떼를 너무 쓴다든지, 화를 너무 자주 낸다 등의 감정처리문제 등 자녀의 다양한 문제를 토로한다.(사서 E)

우리는 참고데스크에서 다양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읽을 만한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당면한 문제와 관련하여 책을 추천해달라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문제에 대해 문의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 고민을 토로하고 관련 자료를 추천해달라는 부모들도 많다. 이외에도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은 새로운 학교나 교실에서의 적응문제, 친구관계, 가족이나 형제관계, 가족의 죽음 등과 관련해서다.(사서 C)

위 면담에서도 나타나듯이 부모, 교사, 어린이집 종사자 등의 고객들이 사서들에게 취하는 가장 일반적인 행태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당면한 특정 문제와 관련된 '책을 추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추천해달라는 책의 내용은 몇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면담을 보면 구체적 내용이 드러난다.

자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을 제공받았을 때 고마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 같다. 또한 자녀에게 일어난 문제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며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찾는다.(사서 C)

부모들은 고민이 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주는 책을 추천해주길 원한다. 책을 통해서 자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싶어 한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가 있었다. 이 부모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아이가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지 그 해답을 찾고 있었다.(사서 B)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4살 된 아이가 있는 임신 중인 한 부모는 태어날 아기의 안전문제가 염려가

되어 관련 책을 추천해달라고 하였다. 또한 어떤 교사는 십대들의 성병예방을 위해 관련 자료에 대해서 문의하였다.(사서 A)

위 면담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린이청소년의 특정문제와 관련한 도서관고객들의 요구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 문제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책을 필요로 한다. 즉 어린이나 청소년의 문제 그 자체를 다루고 있어 문제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요구한다. 둘째, 문제행동을 극복하거나 수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요구한다. 셋째,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예방적 차원에서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한편, 사서들과의 면담에 기초하면, 부모들은 자녀의 당면 문제와 관련하여 사서에게 문의할 경우 그 문제와 관련하여 자녀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읽을 만한 '어린이청소년용' 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문제상황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성인용 책은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사서의 권유와 추천에 의해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어린이나 청소년의 특정 문제와 관련한 질의와 도움요청이 발생하였을 때 어린이(청소년) 사서들이 대응하는 서비스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 자료추천과 안내

먼저, 도서관고객인 독자가 의뢰한 문제상황을 분석하여 관련 책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독자상담 서비스를 하는 것이 밴쿠버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사서들의 가장 일반적인 대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답변이 이를 뒷받침한다.

자녀의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가 들어올 경우 우리는 주로 관련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을 추천하는데 주력한다.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문제상황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비롯한 고객의 요구를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적합한 책을 건넬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심도 깊은 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한다.(사서 A)

한편, 사서들의 서비스는 문제상황과 관련된 '책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비롯하여 DVD, 비디오, 인터넷사이트 등 다양한 자료를 추천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앞서 어린이청소년의 당면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들을 비롯한 고객들은 관련 '책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서들은 문제와 관련된 책을 추천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책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추천하고 있었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서에 의한 자료추천은 어린이청소년용 자료만이 아니라 성인용 자료도 동시에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청소년의 문제는 어른의 이해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기에 문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 성인용 자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다.

□ 어린이청소년 문제관련 추천도서목록(booklists)을 개발, 안내

밴쿠버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어린이청소년의 문제상황에 대한 자료의 안내와 추천작업을 토대로 자주 요구되는 문제상황은 목록을 따로 개발하여 추천도서목록(booklists) 형태로 안내하고 있었다. 추천도서목록은 팸플릿이나 리플릿 형태로 제작하여 어린이실(코너)과 청소년실(코너)에 비치해두어 이용자들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밴쿠버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 문제상황 관련 추천도서목록은 다양하다. 먼저, 새로운 경험(New Experiences)이라는 주제의 목록은 죽음, 이혼과 새가족, 이사, 새아기(New Baby), 학교와 어린이집, 의사와 병원, 감정, 질병, 배변훈련, 형제간의 경쟁 및 갈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왕따 문제를 다루는 추천도서목록은 밴쿠버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사서들을 비롯하여 밴쿠버 교육청의 학교 내 폭력방지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어린이서점 종사자 등이 참여하여 개발하였다. 이 뿐 아니라 한부모가정을 위한 추천도서목록, 혼합가족을 위한 추천도서목록, 입양가정을 위한 추천도서목록, 동성부부를 둔 가족을 위한 추천도서목록,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 청소년들을 위한 추천도서목록, 어린이성교육을 위한 추천도서목록, 다문화관련 그림책목록 등 다양하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위기와 관련한 정보 및 자료도 안내하고 있다. 알코올과 약물중독, 청소년위기센터, 자살, 우울, 폭력, 성문제, 게이·레즈비언·양성애·트랜스젠더 등을 중심으로 주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자료들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부모와 교사를 위한 자료도 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자료유형 또한 픽션, 넌픽션, 비디오 및 DVD, 웹사이트로 구분하여 각 자료에 대한 해제를 덧붙이고 있다. 도서관홈페이지에서도 안내하고 있다.

□ 독서토론회를 조직하거나 북토크를 실시

한편, 문의가 갖은 주제들이나 이슈가 되는 주제들은 독서토론회나 북토크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었다. 밴쿠버 공공도서관에서는 십대들과 관련된 자살, 중독, 혼전성관계 등을 주제로 하는 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가 초청되어 전문적 조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전개될 때는 특정 주제와 관련한 책을 전시하거나 코너를 만들어서 고객의 관심과 참여를 증폭시키고 있었다.

□ 정신건강관련 전문가 초청강연 프로그램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를 독서토론회 및 북토크에 초청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전문가 초청강연을 조직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요구를 충족시키기도 하였다.

우리는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련 전문가들이 스토리 타임에 참석하게 하여 스토리타임이후 부모들과 양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조직한다.(사서 E)

□ 지역사회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연결

마지막으로 어린이나 청소년의 특정 문제와 관련한 질의와 도움요청에 사서들은 문제상황에 처한 어린이나 청소년, 가족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지역사회 다양한 서비스기관을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레퍼럴서비스(referral service)로 부응하고 있었다.

부모나 교사 혹은 심대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관련기관을 연결해주는 데 치중한다. 우리는 자주 고객들을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련 지원센터에 연결해준다.(사서 C)

내가 직접 이들에게 조언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안내를 받도록 해준다. 나는 이러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언제나 관련된 좋은 책이나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권해주는 데 치중한다.(사서 B)

위 사서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나듯이 사서들은 관련 문제에 대한 책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데 주력하면서도 지역사회 정신관련 전문가들이나 기관을 연결해줌으로써 도서관의 고객들이 보다 전문적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3. 어떤 정보원을 활용하는가?

어린이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고객들의 문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서들이 활용하는 정보원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관련 책을 추천하기 위해 도서관의 목록을 일차적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밴쿠버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개발한 어린이청소년 문제관련 추천도서목록도 활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림책을 추천할 경우는 주제별로 안내해주는 A to Zoo²⁸⁾와 같은 색인을 활용하여 관련 그림책을 안내하고 있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련 기관의 안내를 위해 지역사회 명감에

28) Carolyn W. Lima and John A. Lima, *A to Zoo : Subject Access to Children's Picture Books*(Libraries Unlimited, 2005).

대한 활용도도 높았다.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 온라인서점의 활용도 있었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였으며 동료들로부터도 자문을 구한다고도 하였다. 이들 정보원 중에서도 사서들은 도서관목록을 일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픽션자료의 경우 도서관목록을 통한 주제검색의 결과에 한계가 많아 온라인서점을 활용해 검색한 뒤 소장유무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도서관목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4. 독서치료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마지막으로, 문제상황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의 형태로서 독서치료서비스에 대해서 사서들은 어떤 생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밴쿠버 공공도서관 어린이(청소년)사서들은 대개 책의 치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하지만 사서의 직접적인 치료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사서들은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데는 다들 공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어린이청소년 문제상황에 대한 사서들의 지원 양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앞서 문제상황에 처한 어린이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 사서들이 가장 중점을 두는 서비스는 적절한 책을 안내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 어린이청소년의 문제상황과 관련한 사서의 역할은 도서관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조언을 하는 데 있기보다는 적합한 책의 제공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에 있다는 점이 사서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된 사서들의 생각과 의견은 아래 면담결과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책이 할 수 있는 일은 참으로 많다고 생각한다. 사서는 문제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 어떤 책이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이를 추천할 수 있다. 사서는 적절한 책을 추천함으로써 어린이나 청소년, 어른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다.(사서 B)

무엇보다도 나는 책의 가치를 믿는다. 내가 치료적 영역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역할은 없다. 하지만 책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은 어린이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답을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아이의 상황과 문제에 적절할 좋은 책을 안내해주는 사서의 역할을 통해서 치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고객의 요구와 상황에 맞는 가장 적절한 책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사서 C)

한편, 사서들은 어린이청소년들의 문제상황과 관련하여 도서관의 고객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도서관의 서비스보다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가들에 의한 서비스가 더 좋은 해결책이라 여기고 있었다.

사서는 문제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 어떤 책이 도움이 되는지 알고 이를 통해 나의 고객에게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서보다는 사회사업가, 정신과의사가 좀 더 실제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사서 A)

최근에 어떤 고객이 자신의 문제와 관련한 책을 찾고 있어 내가 최선을 다해 많은 시간을 들여 찾아주었다. 그러나 그 책을 빌려가서 읽고 난 뒤 그녀는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실 그녀는 내가 아니라 의사를 찾아갔어야 했다.(사서 B)

이처럼 도서관이 어린이청소년들의 문제상황과 관련해서 서비스할 때는 사서라는 직업의 전문적 능력 한도 내에서 서비스해야 한다는 것이 사서들의 기본입장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사서들은 직접적인 조언보다는 고객들을 위한 좋은 책을 제안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 어린이청소년들의 관심과 이슈와 관련된 독자상담서비스를 향상하는 것이 도서관적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당면 문제와 관련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나 기관을 안내해주고 연결해주는 것이 도서관의 주요한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사서에 의해 제공된 책이 치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전문직적 판단과 지식이 요구된다는 데는 사서들의 이견이 없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의 당면 문제와 상황을 비롯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또한 치료효과가 높은 책 선택을 위한 사서의 주요한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사서들의 입장은 아래의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어린이들이 그들의 환경에 문제가 있거나 좌절을 겪을 때 그들 스스로 감정을 올바르게 처리하기란 어렵다. 특히 문학은 실제 삶을 묘사하고 있기에 어린이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한다. 독자인 아이들이 스토리에서 그들 자신을 볼 수 있다면 이는 아이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아이들이 책에서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에게 적합한 책을 안내하고 읽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요구가 담긴 책이 어떤 책이냐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사서 C)

내가 권낸 한 권의 책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이들의 요구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만 적합한 책을 건넬 수 있다.(사서 E)

그림책을 포함하여 많은 책들이 아이들의 당면문제를 대처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실제 삶을 묘사하

고 있다. 이혼, 학대, 공포, 알코올중독 부모, 장애, 형제간의 경쟁이나 질투, 학교 문제, 인종의 차이, 동료 간의 갈등이나 압박 등에 대한 책들이 많다. 이들 책 중의 어느 하나가 아이에게 유용하려면 가능한 한 아이 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고객에게 적합한 책을 건네기 위해서는 평소 이와 관련된 지식과 정보가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만족도가 높은 책이 고객에게 전달되게 된다.(사서 D)

한편, 책의 치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또 하나 중요한 과정으로서 읽은 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이 수반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독자가 책에서 받은 인상을 이야기 하거나 토론하게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표현하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은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프로그램의 형식을 통해 수반될 수 있다. 그러나 밴쿠버 공공도서관에서는 이러한 형식의 프로그램은 전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도서관의 독서치료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사서들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해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기에는 치료사적인 전문적 자질이 필요하게 된다. 어떤 경우는 아이들의 통제되지 않는 심각한 감정들이 폭발되어지거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사서인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전문적 훈련을 받지 못했기에 만약에 이와 같은 작업을 할 경우는 전문치료사의 개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사서 C)

이렇듯 사서들은 사서의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하며, 적절한 책을 적절한 이용자에게 연결하는 것이 사서의 주요한 역할로 규정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해서는 전문치료사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IV. 북미 공공도서관계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특성

지금까지 북미지역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양태와 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미 공공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개입하고 지원하는 양태에서 몇 가지 특성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북미 공공도서관계에는 정신건강과 관련한 문제와 위기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도움요청과 이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부응이 하나의 현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역주민들이 그들의 문제상황과 관련하여 도서관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행태가 드러나며 도서관은 이러한

문의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특히나 이러한 현상은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문제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 위기상황에 대해 부모, 교사들을 비롯하여 관련 청소년이 도서관에 문의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도서관은 어린이서비스와 청소년서비스 차원에서 이들의 도움요청에 부응하고 있었다.

북미의 지역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지역사회, 카운슬러, 정신치료사, 정신과의사,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구하는 사회적 기관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²⁹⁾ 이 신문은 “어린이들의 문제? 사서에게 물어보라”라는 제목아래 뉴저지의 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어린이사서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도서관을 통해 어린이나 청소년의 당면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주민의 이와 같은 행태와 현상을 두고 루(Lu)는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새로운 요구라고 해석한다. 그녀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서가 고객들의 정서와 심리문제, 교육 및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원은 북미 공공도서관계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지역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북미 공공도서관의 지원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적 비극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위기상황이 초래되었을 때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충격과 불안, 공포, 죽음, 스트레스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원서비스는 재해가 발발한 시기와 지역 중심의 한시적 서비스라고 한다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도서관의 일상적인 지원은 독자상담과 정보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독자상담과 정보서비스를 통한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특히나 어린이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상황들 즉 입양, 이혼, 재혼, 별거가족, 친구, 장애, 죽음, 자아존중, 불안·공포·화 등의 정서적 문제, 왕따, 폭력, 학대, 자살, 질병, 중독, 성문제, 청소년임신등과 관련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독자상담의 경우 문제상황과 관련된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는 도서관의 가장 일반적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그 문제를 다루는 적합한 책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다양한 문제상황과 관련된 추천도서목록을 개발하여 안내하고 있었다. 독자상담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정신건강 지원서비스가 지역주민의 당

29) “A childhood Issue? Ask a Librarian,” *New York Times*(20 May 2007).

30) Ya-Ling Lu, “Coping Assistance vs. Readers’ Advisory,” *Children and Libraries*(Spring 2008), p.21.

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책’의 제공에 중점을 둔다면 정보서비스의 형태로 나타나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문제상황과 관련한 적합한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레퍼럴서비스(referral services)에 주안점을 두었다. 도서관은 고객들이 특정 문제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도서관은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독서토론회나 북토크 형식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주민의 관심과 요구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서관의 정신건강 관련 지원서비스에서 사서는 관련 책을 ‘안내’하고 관련 전문기관을 ‘안내’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서는 문제상황과 관련하여 고객과 책을 연결하고, 고객과 전문기관을 연결하고 있었다. 즉 고객들이 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넷째, 이러한 사서들의 활동과 입장은 도서관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하나인 독서치료와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북미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치료라는 이름의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책’을 도구로 활용하여 고객의 정신건강문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사서들은 문제상황에 적절한 책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연결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역할로 규정하고 있었다. 사서들은 그들의 고객인 독자에게 치료가치가 높은 책을 선택하여 제공하는 활동이 사서의 핵심적 역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나 밴쿠버 지역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책의 치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지만 사서의 ‘치료’적 역할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전반적으로 사서들은 자신들의 활동이 치료(therapy)라고 불리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치료라는 말에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들 사회에서 치료(therapy)는 의학적인 용어로 제한하며, 의료계통의 의사들, 카운슬러 등과 같은 직업 계통의 사람들이 하는 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치료가 도서관의 활동에 적용되었을 때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잠재우기 위해 독서치료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을 제한하고 있었다.

사실 북미에서 독서치료에서의 사서의 역할과 관련한 논의는 오랜 동안에 걸쳐 전개되어왔던 중요한 이슈였다. 특히 독서치료는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에서부터 신체적인 건강문제나 발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독서치료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났었다. 이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제시하면, 먼저 1970년도에 루빈(Rubin)은 독서치료의 유형을 발달적 독서치료와 임상적 독서치료로 구분함으로써 다양한 전문집단이 독서치료에 개입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발달적 독서치료는 비의학적 독서치료로 사서에 의해서 진행되는 독자상담과 유사하다고 하였으며, 임상적 독서치료는 진단적 혹은 기관적 독서치료로 정신건강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

독서치료에 있어서의 사서의 역할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³¹⁾ 이와 더불어 루빈은 사서의 치료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사서는 독서치료에서 독자가 자기실현(self-actualization)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고무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³²⁾

또한 스펀(Sturm)은 독서치료를 독자상담의 특별한 형태로 간주하면서 사서에게 있어서 치료란 레퍼럴(referral)이라고 주장하였다. 카운슬러나 치료사로 훈련되어 있지 못한 사서의 한계를 지적하며 전문자격증 없이 치료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독서치료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은 독자에게 카운슬링(counselling)하는 것이 아니라 어드바이즈(advise)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³⁾

반면, 돌(Doll & Doll)은 사서에 의한 독서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돌(Doll & Doll) 또한 독서치료를 임상적 독서치료와 발달적 독서치료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서직에 의해서 수행되는 독서치료는 발달적 독서치료이며, 임상적으로 전개될 때는 정신관련 전문직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상적 독서치료에 있어서도 사서직은 정신건강 전문직들과의 협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였다.³⁴⁾

이처럼 북미 도서관계에서는 독서치료와 관련한 사서의 역할에 대해 오랜 기간에 걸쳐 논의해왔으며 이러한 논의의 결과 사서에 의해 수행되는 독서치료는 주로 '발달적 독서치료영역'³⁵⁾이며, 독서치료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은 문제상황에 적절한 책을 독자에게 안내하고 연결하는 데 있는 것으로 합의되고 있었다.

다섯째, 북미에서는 현재 독서치료라는 이름의 서비스는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사서들은 책을 통한 치료활동에서 그들의 역할을 제한하는 등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서관을 통한 독서치료 현상은 존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서들도 치료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독서치료는 사서에 의해 제공된 책을 읽는 독자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었다.³⁶⁾ 이러한 과정에서 사서는 문제상황과 관련한 직접적 조언보다는 책의 치료적 가치를 인식하

31) Rhea Joyce Rubin, *Using Bibliotherapy: A Guide to Theory and Practice*(Phoenix: Oryx Pr., 1978), p.34.

32) *Ibid.*, p.10.

33) Brain W. Sturm, "Reader's Advisory and Bibliotherapy : helping? or Healing?," *Journal of Educational Media & Library Sciences*, Vol.41, No.2(December 2003), p.177.

34) Beth Doll and Carol Doll, *Bibliotherapy with Young People: Librarians and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orking Together*(Englewood, Colo. : Libraries unlimited, 1997), pp.9-13.

35) 발달적 독서치료는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청소년)사서와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교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독서지도(Reading Guidance)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Alice Smith, "Will the Real Bibliotherapist Please Stand Up," *Journal of Youth Services*, 2(Spring 1989), pp.241-249).

36) 존스(Jones)는 독자상담의 일환으로 제공된 책이 독자들이 당면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서에 의한 독서치료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Jami L. Jones, "A Closer Look at Bibliotherapy," *Young Adult Library Services*(Fall 2006), p.26).

여 치료도구인 책을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문제치유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었다. 즉 사서에 의한 적절한 책의 선정과 제공을 통해 고객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서들의 활동은 여가 및 교육적 도구로서 책(독서)과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치료적 도구로서 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³⁷⁾

여섯째,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드러나는 사서의 주요한 역할과 능력은 '책에 대한 장악력'이라는 점이다.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지원과 관련하여 사서들이 주안점을 두는 서비스는 관련된 적합한 책을 안내하고 추천하며, 추천도서목록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들 서비스의 토대는 바로 사서의 관련 책에 대한 지식과 판단력, 그리고 책에 정통하기 위한 사서의 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관련 지원서비스의 경향과 특성을 살펴 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북미지역의 정신건강관련 서비스 실체를 파악한 궁극적 의도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에 시사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해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미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는가? 북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의도가 아니라면 이를 밝히는 작업은 깊은 성찰과 고민이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공공도서관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조건과 환경, 요구 등 차별적인 환경도 고려해야 하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북미지역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관련 지원서비스에서 우리 공공도서관계가 검토해볼만한 사항을 연구자가 몇 가지 제안해 보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북미의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관련 전문직으로부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우리보다 나은 사회환경 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도움요청과 이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지원은 광범위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을 확인함으로써 연구자는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이 시도하고 있는 독서치료서비스가 가지는 의의와 가치에 대해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특히나 다양한 정서적 정신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해줄 있는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스템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면 현재 독서치료로 대표

37) 이와 관련하여 루(Lu)는 사서가 여가적 교육적 장치로 책(reading)과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치료적 도구로서 책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조명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기대이상의 영향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서 위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한 바 있다(Ya-Ling Lu, *op. cit.*, p.21).

되는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긍정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국내 공공도서관 사서들에게 독서치료를 공공도서관의 서비스로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권유하고 싶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일상생활 속의 상처나 문제들을 비롯한 정신건강과 관련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되거나 활용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사서가 선정, 제공하는 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도서관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생소하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국내 공공도서관은 독서치료 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건강 지원서비스를 검토해봄으로써 지역사회에 정신건강문제와 관련한 공공도서관의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현재 북미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독자상담과 정보서비스는 우리사회와 공공도서관에 충분히 적용가능하면서도 의미 있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의 상처나 정서적 정신적 문제에 대해 정보를 구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열악한 한국현실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서적 정신적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이 되는 적합한 책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독자상담과 문제상황과 관련한 정보 및 전문기관을 안내하는 정보서비스는 우리사회에 매우 필요하면서도 유익한 서비스 품목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상담과 정보서비스는 현재 국내도서관에서 각광받고 있는 독서치료의 외연을 보다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도서관계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볼직하다.³⁸⁾ 이와 같은 다각적인 서비스를 통해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자연스럽게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북미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관련 서비스의 핵심적 역할은 고객에게 도움이 되며, 치료가치가 높은 책을 선택하여 제공하는 것이었다. ‘치료도구로서의 책’을 선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기대이상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영향과 효과는 이미 국내 공공도서관의 독서치료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나타난 바 있다.³⁹⁾ 이러한 활동은 스토리텔링이나 북토크, 책 안내와 전시 등과 같은 보다 다각적인 도서관활동을 통해서도 공유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공공도서관계에서도 지역사회 정신건강문제와 관련하여 도서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화하여 검토해보는 것도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북미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 지원서비스는 특히 어린이청소년 문제를 중심으로 활성화

38) 연구자는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서비스의 일환과 독서치료의 외연확대라는 측면에서 독자상담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정보학자로서 독서치료를 연구한 Doll(Doll & Doll)에 의하면 독자상담은 독서치료에도 주요한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들은 도서관의 독자상담(Reader's advisory)을 비롯하여 독서토론(Book Discussion), 북토크(Booktalk)가 독서치료에 중요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Beth Doll and Carol Doll, *op. cit.*, p.44).

39) 본 논문의 각주 2를 참고.

화되고 있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라고 예외는 아니다. 특히 어린이사서를 비롯한 청소년 담당 사서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와 교사들로부터 자료 요청을 많이 받게 되고 이를 통해 사서들은 독서치료의 실행에 많이 관여할 수 있게 된다.⁴⁰⁾ 공공도서관은 이와 같은 잠재적 요구를 고려하여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관련 지원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의 몇몇 공공도서관에서도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치료프로그램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다.⁴¹⁾ 따라서 사서들은 어린이 청소년서비스의 일환으로 어린이청소년의 정서와 심리문제, 교육 및 사회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이들 문제를 도서관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관련 지원서비스는 공공도서관 뿐 아니라 학교도서관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서비스 품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북미 공공도서관의 정신건강관련 지원서비스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는 중요한 시사점은 그들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서비스력은 책에 대한 장악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관련 책에 대한 지식과 판단은 이들 서비스를 실행하기 위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었다. 사서가 제공한 책이 독자에게 유용하고 치료적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책을 읽는 독자의 문제상황에 맞는 것이어야 하기에 책에 정통하기 위한 사서의 일상적 노력이 수반되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도 우리에게겐 참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독서치료를 비롯한 정신건강관련 서비스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과 관련한 부분이다. 북미 공공도서관에서 독서치료라는 이름의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책’을 도구로 활용하여 고객의 정신건강문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었다. 이들 서비스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사서들은 문제상황에 적절한 책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연결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역할로 규정하는 반면에 사서가 직접적인 ‘치료’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북미에서 치료(therapy)는 의학적인 용어로 제한하여 의사들, 카운슬러 등과 같은 전문치료사의 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사서들 스스로도 치료적 영역은 사서의 직업적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치료가 도서관의 활동에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사회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서들은 그들의 역할을 적절한 책과 기관을 안내하고 연결해주는 것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 역시 독서치료에 대한 사서의 역할과 관련하여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존재한다. 더불

40) Beth Doll and Carol Doll, *op. cit.*, pp.39-48.

41) 서울남산도서관, 울산중부도서관, 울산남부도서관, 울산동부도서관, 부산반송도서관, 순천기적의도서관 등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의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다(조나리, 독서치료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7), pp.21-23).

어 국내에서는 독서치료에 대한 관심과 요구는 높으나 독서치료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독서치료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혼돈과 우려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정근의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막 이룩기를 맞는 독서치료 분야의 관련자들은 인식과 경험의 한계 때문에 독서치료를 통해 정확히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할 수 없는가를 가늠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를 넘어 적절성을 잃은 과감성과 용기를 내보이기도 한다. 상품을 과대 포장해 내놓기도 한다. 실수의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독서치료를 포함한 대안 요법 관련자 간에 어떤 명확한 업무상의 구분이 합의과정을 통해 성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래서 혼란은 가중된다. 나는 독서치료 관련자들이 분수에 넘치는 과도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경계 혼란의 함정 역시 지금의 단계에서 관련자들의 미흡한 준비도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관련자 자신들이 떠맡아야 할 명으로 남는다.”⁴²⁾

이와 더불어 사서가 독서치료를 운영할 합당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기도 한다. 독서치료를 둘러싼 사서의 역할과 관련한 혼돈과 우려, 비판은 국내 독서치료가 초기단계에서 맞게 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혼돈과 우려,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서치료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과연 어디까지이며, 어떠한 자질과 자격이 필요한지 등 독서치료에 있어서의 사서역할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내 독서치료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기본입장은 독서치료와 관련한 북미 사서들의 역할에 의거해서 국내 사서들의 역할을 설정할 것이 아니라 독서치료를 둘러싼 국내의 현실과 환경,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정확한 관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미와는 다르게 정신건강 지원시스템이 열악한 국내 환경, 그에 비해 정신건강 문제와 이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 현실에서는 정신건강관련 ‘전문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공간, 또는 반드시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공간’⁴³⁾에 사서의 독서치료 역할이 분명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내의 사정과 조건을 심분 이해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도서관계 내에서의 합의를 비롯하여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42) 김정근, 전계서, p.172.

43) 상계서, p.165.